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오직 나를 듣는 자는安然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하신 대로 주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노년의 성도들.

태양아 달아 머무르라

누구든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 믿음의 행진을 하면 범사에 형통한 길로 인도받을 수 있다.

2015 부활절 뮤지컬 공연

주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도들의 고백을 통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영적인 사랑의 의미를 새겨본다.

주 날개 밑 즐거워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질병 문제를 해결받은 양영남 집사와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보호받은 영국 데이빗 무카사 선교사 간증.

만민뉴스

제681호 2015년 4월 12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나이 들어도 젊게 사는 비결, 알고 싶으세요?”

천국 소망으로 노년을 행복하게 보내는 성도들

의학의 발달로 100세 장수 시대를 맞이한 요즘, 어떻게 하면 더 젊고 행복하게 노년을 보내느냐가 이슈가 되고 있다. 언론매체에서도 노년을 아름답게 사는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천국 소망으로 건강하고 성령 충만한 신앙 생활을 하며 노년을 행복하게 보내는 성도들이 많다.

광주만민교회 이재식 장로(사진 2)는 86세의 나이에도 학생주일학교 교장, 나사렛성가대 대장으로 충성하고 있다. 먼저 인사를 건네며 상대 눈높이에 맞춰 섬기니 팬이 많다. 또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항상 있으며 늘 기도하고 모임에도 지각하는 법이 없다. 아울러 학생, 장년 할 것 없이 성도들을 두루 살피고 심방하는 그의 충성과 섬김은 성도들의 신앙 모델이 되고 있다.

이 장로는 “한번 믿고 나가면 변치 않고 달려가야 하는 거죠. 당회장 이재록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역사가 무수히 나타나 믿고 순종했을 뿐인데 지금까지 아픈 데 없이 건강하고 천국 소망하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니 하루하루가 얼마나 즐겁고 감사한지요.”라고 말했다.

또한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던 일본 시모다이라 미야코 성도(77, 사진 1)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로 고혈압과 빈혈, 역류성 위염을 치료받았다. 이뿐 아니라 16년간 겨울만 되면 열 발가락에서 피가 나서 걸을 수 없었던 동상을 치료받았으며, 이재록 목사의 기도로 무안만민교회 앞 바닷가의 잔물 이 단물로 변한 권능의 무안단물(출 15:25)을 안약 대신 사용해 시력이 0.6에서 1.5로 회복되는 축복도 받았다.

그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집에 장식해 놓았던 불탄과 가미다나(집에서 모시는 작은 신전), 용 금장식 등을 모두 내다 버린 뒤에 축복이 쏟아졌어요. 일본에서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숭배라는 것을 알고 난 뒤에는 과감히 정리했지요.”라고 말했다.

십일조 헌금을 시작한 뒤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 농사도 풍작이 됐는데, 미야코 성도가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구원받아 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은 인생 모년(暮年)에도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며 천국 소망 가운데 행복한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다(사진 오른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재식 장로, 이정순 권사, 주우원 집사(가운데 안경 착용), 시모다이라 미야코 성도).

국에 간다는 확신을 얻은 것이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오십 년 정도됐지만 첫사랑의 뜨거움이 단 한 번도 식은 적이 없는 이정순 권사(82, 사진 3) 또한 젊게 사는 성도 중 하나다.

젊은 시절 정금 같은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금방지를 드린 이 권사는 우리 교회 개척 때부터 33년간 기도제물연합회 최고령 회원으로 헌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로 헌신하고 있으며, 영혼 사랑도 승해서 늘 전도에 힘써 왔다.

이렇듯 주 안에서 은혜와 기쁨이 넘치니 주님을 영접한 후 지금까지 병원이나 약과는 상관없이 살며 젊은이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있다.

이 권사의 젊음의 비결은 무엇일까? 기도 생활과 함께 바로 무안단물이라고 했다. “매일 아침 무안단물을 한 컵씩 마시고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께 오장육부 뼈마디, 관절 세포까지 튼튼하게 해 주시고, 머리도 빠지지 않게 해 주시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치아도 튼튼하게 해 주시라고요.”

이 밖에도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주우원 집사(85, 사진 4)는 인천에 살지만 매주 주일예배를 서울에 와서 드리고 있다. GCN 방송을 통해 말씀을 항상 들으며 하루에도 서너 번씩 이재록 목사의 환자기도를 받는 것이 건강 비결이라고 했다. 아침마다 성전 건축과 자신을 위해 1시간씩 기도하며 최근에는 5-2남선교회에서 진행되는 ‘말

씀, 기도, 선 실천운동’에 참여하느라 열심이다. 그는 신앙생활하면서 달라진 점이 항상 기쁘고 평안한 것이라고 한다.

세상에는 가족의 무관심과 경제적 어려움, 갖가지 질병 등으로 외롭고 쓸쓸하게 노년을 보내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생의 황혼을 일컬어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잠 16:31)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주 안에서 얼마든지 걱정 근심 없이 몸도 마음도 강건하고 평안하며, 천국 소망 가운데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사 40:31).



당회장 이재록 목사

“...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수아 10:12~14)

태양아 달아 머무르라

려하셨기 때문에 그들과는 결코 화친하지 말라 하셨습니다(출 34:15). 반면에 가나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섬기며 싸우고자 하지 않을 때는 그들과 화친해도 된다고 허락하셨지요.

낮선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주 먼 곳에서 왔다는 증거로 초라한 행색을 하고 곰팡이가 생긴 떡과 해어진 포도주 부대, 낡은 의복과 신발 등 여러 가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그들을 살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의 족장들도 그들에게 맹세했습니다(수 9:14~15).

그런데 이는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먼 곳에서 온 것이 아니라 가나안 일곱 족속 중 하나인 히위 족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사는 기브온은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는 길갈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거리인데다가 그들이 보여 준 것은 다 거짓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방백들이 그들의 속임수를 깨닫지 못한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화친을 맺고 3일이 지난 후에야 그들이 히위 족속인 줄 알았고 자신들이 취해야 할 땅을 공격하지 못하게 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그들의 거짓말에 속았지만 이미 하나님 앞에서 맹세의 말로 화친했기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지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기브온 거민들을 살려주는 대신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종이 돼 나무를 패고 물 길는 자로 섬기도록 했습니다(수 9:23).

2. 기브온 사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

1) 범사에 하나님 뜻을 여쭙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기브온 거민과 화친을 맹세함으로써 비록 고의적인 불순종은 아니었지만 가나안 거민과 화친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성급하게 화친을 맹세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여쭙었다면 그들의 말에 속아 잘못된 맹세를 하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이나 일터에서 여러 계약이나 거래를 하는 중에 때로는 약한 사람이 계약을 쓰며 속이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고 쉽게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슨 일이든 먼저 불같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여쭙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욕심이 없는 선한 마음 가운데 성령의 주관을 받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므로 상대가 속이려 할 때 성령이 깨닫게 하시며 피할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2) 입술의 말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고 오랜 세월이 지난 후,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에 3년간 기근의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 까닭을 하나님께 여쭙었더니 여호수아 시대에 기브온 사람에게 한 맹세를 어기고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보응이 다윗 시대에 기근의 재앙으로 임한 것입니다.

결국 기브온 사람의 요청대로 사울의 후손 일곱을 죽이니 그제야 기근이 그쳤습니다(삼하 21:1~14). 이처럼 입술의 말과 더구나 하나님께 맹세한 말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사기 11장에도 입술의 말로 인해 이스라엘의 사사 압다가 큰 고통을 자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면 집에 돌아갈 때 처음 자신을 영접하는 사람을 반제로 드리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압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그를 영접한 사람은 다름 아닌 자신의 무남독녀 외동딸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거는 경솔한 서원을 함으로 심히 고통스런 결과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만약 그가 서원을 어기고 딸을 바치지 않았다면 압다는 자신의 말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원수 마귀 사단의 송사를 받음으로 딸을 잃은 것보다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말의 권세가 큰 것이요, 심지어 사람을 죽이고 살릴 권세까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항상 입술을 지키므로 오직 진리의 말, 선한 말만 내어야 하겠습니다.

3. 태양과 달을 머무르게 한 기적의 사건

여호수아 10장 2절에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기브온은 큰 성이요, 아이보다 크고 사람들은 강하다고 했습니다. 이 기브온조차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소식은 주변의 가

나안 족속들을 더욱 두려움으로 몰아넣었지요. 기브온 주변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이 신속하게 연합군을 결성해 먼저 기브온을 공격하자 기브온 거민들은 즉시 이스라엘에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기브온의 구조 요청을 들은 이스라엘은 신속히 이동해 기습적으로 아모리 왕들을 공격했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연합군은 금세 이스라엘 군대에게 패해 도망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은 그들을 추격했지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온에서부터 벰호론에 비탈길을 따라 아모리 족속을 쫓아갈 때 갑자기 하늘에서 우박을 떨어지게 하셨는데 우박에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습니다(수 10:11).

이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이스라엘은 날이 어두워지면 달아나는 적군들이 숨기가 쉬워지므로 서둘러 싸움을 마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적군을 진멸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렸고, 벌써 하늘 동편으로는 달이 보이기 시작했으므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 놀라운 믿음을 내보입니다. 곧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명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해와 달에게 담대히 명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보장해 주셨습니다(수 10:13). 상식적으로 해와 달이 멈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해가 멈춘 동안 적군을 진멸하고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을 다 죽인 이스라엘은 계속 전진해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수 10:41~42).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생각을 동원했을 때는 사람에게 속임을 당하고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순종했을 때에는 해와 달을 머무르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이처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을 분별해 믿음의 행진을 함으로 범사에 행통한 길로 인도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했습니다.

만일 이것을 뒤로 한 채 하나님 일에만 급급하다면 하나님께 온전한 기쁨이 될 수 없고 알맹이 없는 빈 껍질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마음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브온 사건을 통해 하나님 뜻을 어떻게 분별하며 그분의 뜻대로 행할 때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기브온 거민들에게 속아 화친을 맺은 이스라엘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아이 성을 점령한 후 애발 산과 그리심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한 이스라엘 백성은 길갈에 진을 치고 다음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낮선 사람들이 찾아와 자신들은 심히 먼 지방에 사는 족속으로 애굽의 바로와 요단 동편의 왕들에게 큰 권능을 행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 들었으므로 이스라엘과 화친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가나안 거민으로 인해 타락한 풍속을 접하고 죄악에 물드는 것을 염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팀(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요식업)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월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의행 : 1002-048-310140 (예금주 김연선)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1막 베드로의 고백

예수님과 함께한 지난날의 절었던 자신의 모습과 예수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 했으나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한 일을 회상하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앞에서 한없이 통회했다. 이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한다.



2막 막달라 마리아의 고백

아무 흠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세상이 끝이 난 듯 망연자실한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다. 주님의 부활을 전하라고 부탁하신 말씀대로 이후 막달라 마리아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하루하루를 주를 다시 뵈소망과 기다림으로 살아간다.



순교

martyrdom

부활절 뮤지컬 공연

지난 4월 3일, 우리 교회에서는 부활절을 기념해 금요철야예배 2부 시 예능위원회 주관으로 뮤지컬 '순교'를 공연했다.

공연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곡들로 기획 구성됐으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찬양, 무용, 연기, 연주 등을 담당해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특히 아름다운 유화 작품과 같은 영상 배경과 막을 이용한 회상 장면으로 감동을 더했다.

참혹한 십자가의 희생도 마다하지 않으신 주님의 사랑을 상고하며 베드로, 막달라 마리아, 사도 바울, 제자들을 통해 그 사랑의 참된 의미를 되새겨본 공연 '순교'를 화보로 만나본다.

3막 사도 바울의 고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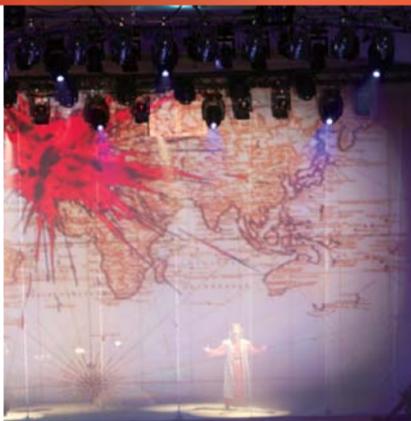
주를 핍박하던 자를 만나 주시고, 복음을 위해 순교의 길을 가게 하심에 사도 바울은 끝없는 감사를 올려드린다.



4막 참사랑(순교의 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신 주님의 참사랑을 고백하는 베드로, 막달라 마리아, 사도 바울의 찬양이 절절하다.



주님의 부활을 목도한 제자들은 주의 부활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순교의 길을 갔으며, 주님을 다시 만날 소망으로 가득했다. 이들의 고백은 주님에 대한 참된 사랑의 의미를 되새겨보게 했다.

GCN 주요 프로그램 안내

2015년 4월12일~4월18일

이재복 목사의 생명의 말씀

- 부활의 의미 ■ 신뢰
- 헌신의 의미 ■ 축복 4
- 사랑장 1-5 ■ 지옥 5-9
- 일곱교회 10-14 ■ 예언 4
- 2차 영혼육 6-10
- 창세기 강해 38-42
- 요한계시록 강해 48-55

GCN TV설교

- 사랑의 힘으로 (이수진 목사)
- 선택과 결과 (이미영 목사)
- 나의 수고는? 2 (이미경 목사)
- 근본의 악 (이희선 목사)
- 용기 강해 7 (신동초 목사)
- 열 재앙 8 (정구영 목사)
- 열매 (천우진 전도사)

예능 프로그램

- 일곱달콤 여여쁜 울동 34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39
- English 15 ■ 옛날 옛적에 14
- 즐거운 요리 15 ■ 내 마음의 찬양 7
- 흥겨운 소리 1 ■ 창조와 과학 7
- 모두 드려요 26 ■ 뷰티풀라이프 11

해외성회 및 교육

- 온두라스 연합대교회 2
- 회상 4

2013년 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표가 와서 저는 검진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몸에 이상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지요. 8월이 돼서야 이 사실을 막내딸에게 말하니 딸은 서둘러 저를 병원에 데리고 갔고 위내시경 검사, 혈액검사, 폐 촬영 등을 했습니다. 검사 결과 폐 사진에서 암이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대학병원으로 가서 CT와 기관지내시경 검사를 받았습니다. CT상으로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았지만 한 달 뒤인 9월 중순쯤 기관지내시경 검사 결과, 소세포 폐암이었습니다. 공기가 이동하는 기관지 내부에 주로 생기는 암으로 폐암의 20%를 차지하며 악성으로 진행경과가 빨라 치료시기를 놓치면 사망에 이르는 질병이었지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저는 4개월 시한부였고, 큰 기관지와 폐가 연결되는 부분에 암세포가 있으며, 나이가 많아서 수술도 불가능했습니다. 자녀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하더니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기도받기로 뜻을 모았다고 제게 알려 주었습니다.

저는 병명을 듣고 잠시 놀랐지만 교회에서 각종 암이 치료되는 것을 보고 들었기에 저도 기도받으면 치료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녀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금식하며 기도했고, 제가 미처 내지 못한 십일조 현금까지 드렸지요.

2013년 10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까지 온 가족이 당회장님께 기도받기 위해 상경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기 전, 교회



▲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으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양영남 집사(앞줄 오른쪽에서 세 번째) 가족.

“소세포 폐암, 마비성 사시를 치료받고 건강해졌어요”

양영남 집사 (79세, 대전만민교회)

에 다니는 딸이 못마땅해 화감에 성경을 찢어 불태운 일과 우상을 숭배한 일 등을 회개했습니다. 당회장님께서서는 모르고 한 일이니 용서해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단 한번의 기도로 치료됐지요.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저는 신앙생활이 즐거워졌습니다. 그러던 2014년 11월, 남편이 생전에 사농은 조그만 땅을 등

기 이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뜻대로 진행되지 않자 상대에 대한 미운 감정과 열기가 났고 속이 상해 밥맛까지 잃으면서 몸이 급속도로 쇠약해졌습니다.

급기야 체중이 7kg 정도 빠져서 혼자서는 걸을 수도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12월에는 왼쪽 관자놀이부터 귀와 턱까지 통증이 왔습니다. MRI 촬영 결과, 심한 통증과 안면마비 증상을 동반한다는 ‘3차신경통’이

었지요. 다행히 이희선 목사님(만민 전 지교회 총지도교사)의 손수건 기도(행 19:11~12)로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손이 저리고 발바닥이 화끈거리며 통증이 오더니 2015년 1월 중순부터는 오른쪽 눈 시력이 떨어지고 사물이 겹쳐 보이며 지면이 울퉁불퉁하게 보여 걷다가 넘어져 상처를 입기도 했습니다. 병원 진찰 결과 ‘마비성 사시’였고 눈이 상하좌우로 전혀 움직이지 않자 뇌신경에 이상이 생긴 것 같으며 대학병원에 가보라고 했지요.

저는 치료받은 체험이 있었기에 당회장님께 기도받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땅을 등기 이전하는 과정에서 미워하고 열기 났던 일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비진리의 말들을 들었던 일 등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설 주간엔 자녀들과 함께 상경해 당회장님을 뵙고 기도받았습니다. 그 순간, 몸에 힘이 주어졌고 마음에는 기쁨이 임하면서 치료받았다는 확신이 들었지요. 그날 저녁, “엄마!” 하고 여섯째 딸이 불려서 쳐다보는데 제 오른쪽 눈동자가 잘 움직인다고 기뻐했습니다. 이후 손 저림과 발바닥 통증이 사라지고 밥맛도 돌아와 기력이 회복되고 체중도 늘었습니다. 지난 3월 2일, MRI 촬영 후 진찰 결과 뇌는 물론 눈도 정상이었지요. 할렐루야!

이처럼 노년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치료해 주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해 주신 당회장님, 감사합니다.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보호받았습니다”



데이빗 무카사 선교사 (53세, 영국 런던만민교회)

지난 3월 4일 새벽, 출근하던 중 갑자기 차의 시동이 꺼지는 바람에 도로 중앙에 멈춰 도움을 청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날 아침 8시 30분, 저는 출근하기 위해 승용차에 탑승한 후 ‘운전을 위한 기도’를 받았습니.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성도들의 안전운행을 위해 기도해 주신 내용이 녹음된 테이프였지요.

저는 새벽에 꾸는 꿈이 생각나 여느 때보다 정성껏 기도를 받았고 카세트 플레이어를 끈 후 기독교 라디오방송을 들었습니다. 아침 9시경, 방송을 들으며 1차선 도로를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도로에서 시동이 꺼져 차가 멈췄습니다. 꿈에서와 똑같은 상황이 현실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앞에서 두 대의 차가 오고 있어서 급히 비켜줘야 하는데 시동이 꺼져 핸들이 돌아가지를 않았습니다.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시동이 정상적으로 작동돼 사고를 피할 수 있었지요. 그곳은 길이 좁은 데다 구부러지고 경사져 상대의 차가 잘 보이지 않아서

평소 사고가 많이 나는 위험지역입니다. 저도 여지없이 앞차와 충돌할 뻔했는데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음으로 그 위험 상황에서도 극적으로 시동이 켜져 무사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200미터쯤 지나 마실 커피를 사기 위해 주차하고 시동을 끈 후 다녀오는데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시동을 껐으니 내 차에서 들리는 소리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보니 제 차에서 당회장님의 ‘운전을 위한 기도’가 크게 흘러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순간 온몸에 전율을 느껴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됐지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비록 제가 한국에서 멀리 떨어진 영국에 살고 있지만 당회장님께서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섬세하신 주님의 사랑을 느껴며 만민의 선교사로서 더 힘써 복음을 전하고자 다짐했습니다. 할렐루야!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예배, 주일 자매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70-8223-4191~4, 010-4182-4194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3, 백성 5/D 7층 ☎051)326-1537, 010-7213-6207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3층 ☎010-8020-733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3771-7970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동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달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영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1로 34 3층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남해안도로 529-32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백률로 76번길 45-1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3층 ☎054)281-2468, 010-9773-701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중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2층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3동2층) ☎063)853-0675, 010-3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3층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3층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3층)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로 22, 연성빌딩 5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8927-2073
- 경인지성전 인천시 서구 원정로 162 ☎010-7133-9770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탈로 95 ☎010-7103-4097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2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우빌딩 지하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대로 112, 5층 ☎010-7133-9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8331-1136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증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